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2층 200호 895신동로 344-22 완경대학교병원 2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음 7월 8일) 제 187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한은 전북본부, 화폐 수급업무 5년만에 재개

전북도, 제3금융도시 조성 가속도 불나

도내 많은 금융기관들
원거리 화폐수송 따라
발생한 시간적 손실 해소

내년부터 금융타운
프로젝트 국가사업 본격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화폐 수급업무 재개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면서 전북도가 국민연금공단과 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3의 대한민국 금융도시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5일자로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에 유창호 외지운용원 투지운용1부장을 전북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5명의 직원도 함께 전북 본부에 배치시키고 조직도 현재 2개 팀에서 3개팀으로 늘리는 등 조지를 정비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관리하던 화폐수급 업무가 광주·전남 본부와 대전·충남 본부로 통합되어 도내 많은 금융기관들이 광주와 대전까지 원거리 화폐수송을 하게 됨에 따라 발생했던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업무 재개는 그동안 전북도가 전북 뒀 찾 가 일환으로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화폐 수급 업무 재개를 위해 국회와 한국은행을 방문하고, 국정감사시 정책 현안 질의 등 화폐 수급 업무 재개의 필요성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전북도에서는 제3의 금융도시 건설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기반을 다져 157억원을 투입해 금융타운 부지를 매입했으며 기본구상 용역까지 마친 상태이다.

또한 2017년에는 추경에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3억원 확보, 2017년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2018년부터 국토부, 금융위, 기재부, 복지부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예타 신청 등 금융타운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공감 콘서트

28일 도청 공연장에서는 제1회 2017 전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공감 콘서트에 송하진 도지사, 최은희 도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일반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다. 이번 콘서트는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11개팀)과 70여개의 미술작품을 전시해 장애 예술인 개인 및 일부 장애인단체의 예술활동을 상호교류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의 장벽을 허무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송하진 지사는 "화폐 수급 업무 재개에 따라 원거리 화폐수송으로 인한 지역 금융기관의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돼 금융타운 조성이 날개를 달았다. 또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유치, 금융타운 조성, 농생명 금융투자 허브센터 설립,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환영 표출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도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같은 날 김 시장은 논평을 통해 "전주시가 지난해 5월 전북권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의 전북지역 화폐수급 업무 복원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이후 1년 3개월여 동안 다각적인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과"라고 자축하며 "그간 전북지역 화폐수급 재개를 위해 노력해 온 전북도와 전주시의회 등 기관·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화폐수급 재개를 전주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안재용 기자

국내외 한민족 여성 리더들, 군산에 집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30일부터 3일간 GSCO에서

기업, 교육,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의 한민족 여성 600여명이 군산에 모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군산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제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대회를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군산컨벤션센터(GSCO)에서 여성가족부, 전북도, 군산시의 공동 주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전역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국내외의 한민족 여성 리더 600여명(국외 32개국 220여명)이 참가, 근대문화유

산의 도시 군산에 모여 우리사회와 전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미래사회의 의제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의 발전을 모색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역할, KOWIN 미래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군산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와 역사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글로벌 여성리더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의 역할을 전망하기 위해 ▲일자리 ▲미래경제 ▲성평등 ▲사회적 가치 등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국

정전반에 걸친 성평등 관점의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30일 개최식에는 '인문학과 과학의 만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통섭의 삶'을 주제로 최재천 이화여대 사회생물학 석좌교수의 기조 강연과 군산시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행사 둘째 날인 31일에는 한민족 여성들이 직접 군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 날인 31일 열리는 폐회식에서는 문동신 군산시장이 '2017 여성정책에 관한 군산 선언문'을 선포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군산시의 여성정책 실현 의지를 확고히 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노력을 다짐할 예정이다. /군산=장 현 기자

전북도 국 과장급 인사 3명

대외협력국장 이강오
도립미술관장 김은영
지사 비서실장 이광겸

전북도가 28일 국장급·과장급 등 인사 3명을 발표했다.

대외협력국장은 이강오(전 지행 정국장)로 민선6기 후기 대외협력 분야 주요 현안(도정의 종합 기획홍보, 국제행사 추진 등)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

도립미술관장은 김은영(국립현대미술관)으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감성을 통해 도민과 지역 미술인들을 잘 융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도지사 비서실장은 이광겸(전 세정과장)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단체장 공석에 대비하여 정무적 기능보다는 내부 행정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진성 기자

해피벌론 원료 환각물질 지정 도교육청, 학생 구매 주의 당부

해피벌론(일명 마약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해피벌론을 구매해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다.

해피벌론은 풍선 안에 있는 기체(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유발해 불연진 명칭이다. 지난 8월 1일 정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정해은 기자

2017 정부지정 최우수축제

www.firefly.or.kr

제21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축제

The 21st Muju Firefly Festival

2017. 8.26 (토) ~ 9.3 (일)

무주군일원 | 지남공원, 등나무운동장, 남대천,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2017 무주 남대천 물축제

8.26~27, 9.2~9.3 (4일간)

·주최: 무주군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교육부·전라북도·전북문화재단·무주·전북무주군무주읍회(복)15 ·문의: (063)320-5004-05